



▲ 남고산성 성곽길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이미영 / 발행일 2021년 6월 28일 / 54984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010-2050-0650 (fax 227-0650)

청수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수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2021년
6월



사단법인 전북청수년교육문화원

향원(鄕原)들을 조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정 우 식

글 심는순서

- | | |
|---|-----------------------------------|
| 02 인사말 - 향원(鄕原)들을 조심하세요! | 06 제2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풍경 |
| 03 소식, 하나 - 『제2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으로 진행 | 07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통일노가바대회시민 참가자 작품 |
| 소식, 둘 - 6월 교육이야기마당, '학교 인권교육' 주제로 열려 | 08 [6월 교육이야기마당] 인권! 교육!! 인권교육!!! |
| 04 소식, 셋 - 답사 동아리, 장수 정인승 기념관 - 토목동 의병전적지 다녀와 | 10 교단일기 - 선생님? 물 마시러 가도 돼요? |
| [향토역사문화 현장을 찾아서] 덕유산 토목동 계곡을 아시나요? | 11 [회원을 찾아갑니다.] |
| 05 민주화운동의 큰 별, 고 한규채 목사님 3주기 추모식 | - 영원한 청년, 교육운동가 김윤수, 박철휘 선생님! |
| | 아이행복, '함열향교 3락(樂)' 올해도 활발하게 진행 |
| | 12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향원은 덕의 적(파괴자)이다." |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제2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

-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

우리 문화원은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제21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개최하였다. 행사 부문으로는 온라인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와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를 진행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으로 진행된 통일노래가사대회는 초등 13팀 37명, 중등 7팀, 19명, 시민 1팀, 3명 등 총 15팀이 참가하였다.

올해 처음 신설한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부문에는 어린이부터 청소년, 시민까지 110명이 참여하였다.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참가자들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평화와 통일은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 속에서 피어나는 가치이므로, 참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업 취지에 따라 상의 이름만 달리하였을 뿐 순위를 따로 매기지 않았다. (관련 소식 0면 참조)

6월 교육이야기마당, ‘학교 인권교육’ 주제로 열려

- 강사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

우리 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가 주최한 ‘교육이야기마당’이 6월 9일 오후 6시30분 본원 교육실에서 ‘학교 인권교육’을 주제로, 온(zoom), 오프(현장 참석)라인을 병행하여 열렸다. 발제는 본원 고문이신 이광철 이사장(사)전북인권교육연구소이 『학교에 인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 만들기 대안을 제시하였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광철 이사장은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며 인권에 대한 정의와 역사를 설명한 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올바른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며, 인권은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로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할 학생인권이라 한다면 그런 학생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사의 수업권 침해는 반인권적 교육환경이므로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의지와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대립에서 상호보완적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려면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며, 특히 학부모 교육은 법령과 조례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라며 참석자들과 교육주체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한 토론에서는 학부모 인권교육의 중요성,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 미흡, 학생인권에 대한 교사 인식 부족 등 반인권적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이 강조되었고, 참석자들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발제 글-발체본은 0쪽에)



답사 동아리, 장수 정인승 기념관

— 토옥동 의병전적지 다녀와 —

지난 6월 11일, 우리 문화원 답사 동아리는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에 소재한 정인승 기념관과 항일의병전적지인 토옥동 계곡을 다녀왔다.

토옥동 계곡은 장수에 있는 덕유산 계곡으로 구천동이나 칠연계곡보다 규모는 작지만 웅장하고 수려한 풍광을 지니고 있다. 토옥동은 호남 의병이 왜군과 치열하게 싸웠던 곳으로 의병들의 땀이 서린 곳이다. 우리 일행은 먼저 토옥동 입구 양악마을에 들러 국어학자 정인승 선생의 기념관과 생가를 방문하고 선생을 뜻을 기렸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문태서·박춘실 전적비를 찾아 참배하고 토옥동 계곡을 1시간 정도 걸었다. 계곡을 오르는 동안 함박꽃이 손짓하고 전날 내린 비로 불어난 토옥동은 우렁찬 소리를 내며 곳곳마다 폭포와 소를 보여주었다. 가벼운 계곡길 산행을 마치고 먹는 송어회 맛은 단연 일품이었다. 토옥동은 자연도 사람도 모두 맑은 곳이었다. 전주에서 출발하여 전주로 돌아오기까지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데는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이면 충분했다.

[향토역사문화 현장을 찾아서]

덕유산 토옥동 계곡을 아시나요?

— 국어학자 정인승 선생과 토옥동 의병전적지를 찾아서 —

답사 지역: 정인승기념관-문태서·박춘실의병대장전적비-토옥동계곡(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장수 토옥동 계곡은 웅장하고 더없이 청량하였다. 북덕유산과 남덕유산 사이 골짜기인 토옥동의 험준한 계곡 길을 올라 고개를 넘어가면 거창군 월성리가 나온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장수군 계북면 양악마을 사람들은 이 고갯길을 넘어 거창으로 장을 다녔다고 한다. 토옥동은 구한말 의병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다. 입구 양악마을 어귀에는 문태서·박춘실의병대장전적비가 서있다.



또 양악마을은 애국지사이자 국어학자인 정인승 선생이 태어나신 곳으로 정인승 기념관이 아담하게 조성되어 있다. 일생을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며, 후학을 길러내신 정인승 선생(1897년~1986년)의 생애는 가장 위대한 교육자의 길이라 여겨진다. 선생은 아홉 살 때, 황성신문에 난 ‘是日也放聲大哭’을 보신 아버지의 통곡 소리에 영문도 모르고 따라 우셨고, 맨주먹의 의병들이 일경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보고 애국을 느꼈다고 한다. 양악마을은 애국자로 일생을 살게 될 어린 시절 정인승 선생의 삶터이자 배움터였다.

일제 치하 선생은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고창고보(1925~1935년)에서 10여 년간 국어와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얼을 깨우는데 전력하셨다. 일제를 피해서 1936년 4월,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고 1백여 쪽의 조판작업이 끝나갈 무렵 1942년, 선생을 포함한 사전 편찬에 참여한 11명 전원을 포함하여 모두 33명은 일정에 연행되었다. 선생은 3년간 옥고를 치르다 1945년 해방이 되자 형무소에서 풀려 나오셨으나 고문으로 왼쪽 귀가 굳어 평생을 짝귀가 되어 고생하셨다고 한다.(*영화 ‘말모이’에서 윤계상으로 분한 실제 인물이 선생이시다.) 선생은 옥에서 풀려나오자 다시 사전 편찬에 착수하여 1947년 10월 9일 『큰사전』 1권 편찬을 시작으로 21년 각고 끝에 1957년 한글날, 『큰사전』 6권 완질을 펴내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정인승 선생은 1951년 전북대학교 국어학 강사를 시작으로 홍익대, 연세대, 외국어대 등 세상을 떠나시기 한 해 전까지 교단에서 후학을 길러내셨고, 4.19혁명 후 제3대 전북대학교 총장을 잠깐 맡으시기도 했다. 일제의 탄압과 모진 고난 속에서 겨레의 말과 글, 얼을 살리시다 가신 정인승 선생의 일생을 되새겨볼 수 있는 정인승 기념관은 청소년은 물론 시민 누구나 꼭 한번 찾아봐야 할 곳이다.

양악마을과 토옥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덕유산을 중심으로 치열한 호남의병운동을 전개했던 격전지이다. 마을 입구 문태서·박춘실의병대장전적비를 찾아서 의병들의 활약상을 되새겨본다.

장수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글이다.

“문태서 호남의병대장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편집자)이 강제로 조인되자 덕유산을 거점으로 호남의병단을 결성하여 신출귀몰하는 병법으로 덕유산 일대에서 500여 회 왜병을 섬멸하였고, 이원역 습격작전, 장수 주둔 일본 수비대 기습작전 등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나 고향 안의에서 왜병에게 체포되었다가 경성형무소에서 34세로 옥사했다. 박춘실 호남의병선봉장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강제 조



인되자 의병 50여명을 이끌고 남덕유산에 들어가 토옥동 어구 양악에서 호남의병장 문태서 장군과 호남의병단을 조직하고 장수, 무주, 진안, 안의, 함양, 거창 등지에서 유격전을 펼쳐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1913년 11월 토옥동 전투에서 결사 항전했으나 일군에 체포되어 대구로 이송, 감옥을 부수고 동지 100여 명을 탈옥시켜 투쟁케 하는 등 끝까지 굴하지 않다가 1914년 6월 3일 40세에 옥중에서 자결하였다.”

문태서, 박춘실 의병장, 그리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의병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토옥동 계곡으로 들어가 보라. 덕유산 청량한 바람은 가슴 속 깊이 들어와 더위를 달아나게 할 것이다. (글 편집인 이미영)

*참고문헌 : 건재 정인승 기념관 리플릿 /문태서·박춘실의병대장전적비(장수군청 홈페이지)

[연대 소식]

민주화운동의 큰 별, 고 한규채 목사님 3주기 추모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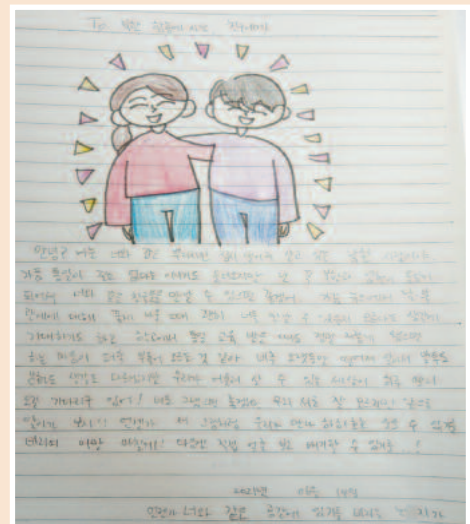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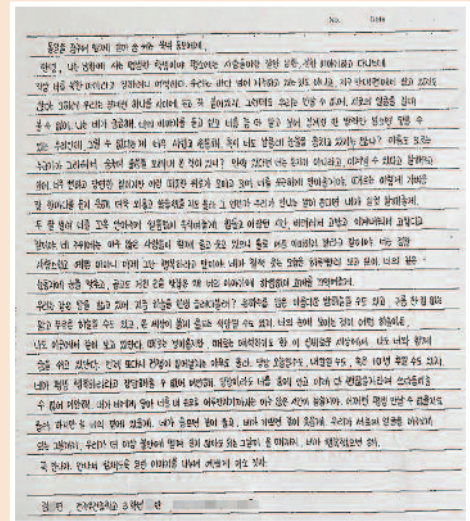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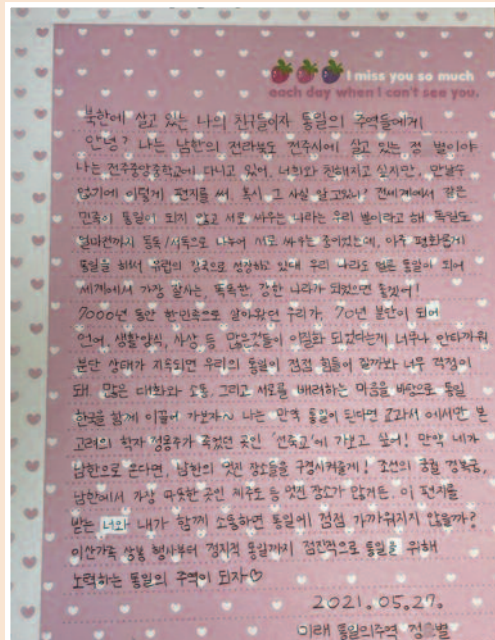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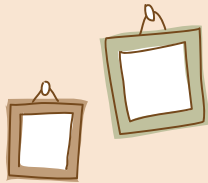
우리 단체와 교육운동을 늘 곁에서 지켜보며 격려해주셨던 고 한규채 목사님(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의 3주기 추모식이 지난 5. 29(토) 11시 완주 이서 묘소에서 있었다. 추모식에는 본원 정우식 이사장님과 문채병, 정은숙, 이미영 이사가 참석하여 나라와 지역사회의 민주 평화,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고인의 큰 뜻을 추모하였다.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 영상 캡처



북녘동포에게 편지쓰기



통일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시민 참가자 작품

(이미영, 송안선, 황순진)

통일은 우리가 하자

(원곡: 사랑은 아무나 하나)

1.

통일은 우리가 하자
통일은 우리가 하자

통일은 우리가 하자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화합의 기쁨도 분단의 아픔도
한겨레가 만드는 걸

어느 세월에 남과 북이 만나
평화협정 맺을까
통일은 우리가 하자
평화통일 이루어 보세

2.

통일은 우리가 하자
통일은 우리가 하자

통일은 우리가 하자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고 만나서 서로를 원하면
자주통일 다가올 거야

어느 세월에 남과 북이 만나
평화협정 맺을까
통일은 우리가 하자
평화통일 이루어 보세

다들 아시는, 쉬운 노래니까 한 번씩 따라 불러 보세요.
아주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열어 가는 통일, 생각만 해도 뿌듯하지요.



인권! 교육!! 인권교육!!!

이광철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1. 인권이란?

제2차세계대전 후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1948년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이 선언에 제시된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표현한 것이다.

- * **인권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이다.**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타고난 존엄성과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세계인권선언 전문) 인권은 ‘사람의 권리(rights of man)’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다.
- *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 권리이다.** 인권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적, 종교, 성별, 연령, 직업, 수입에 관계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
- * **인권은 약자를 위한 권리이다.** 인권은 약자들의 희생 위에 확보해낸 인간의 권리이다.
- * **인권은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 때문에 인권은 사회구성원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인권은 사회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
- * **인권은 개인과 집단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 * **인권은 정당성의 기준으로서, 국가권력을 통제한다.** 인권은 제도적인 제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한 국가의 제도, 법률, 관습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 **인권은 사회변화를 요구한다.** 인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때는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사회의 변화를 함께 요구하게 된다. 이 점에서 인권은 한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2. 인권의 변화

프랑스 법률가 카렐 바사크는 프랑스 혁명의 세 가지 구호, 자유·평등·박애를 근거로 인권의 3세대(단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자유’라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 둘째 ‘평등’에 근거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셋째 ‘박애’라는 연대를 위한 권리이다. 이를 인권 발달 단계로 파악해 1단계-2단계-3단계라 하고, 역사에서 인권 확장 개념으로 보아 1세대-2세대-3세대 인권이라고도 한다.

3. 인권의 방정식

- * **A가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요구한다.**

A : 권리의 주체(rights-holder)

B : 의무의 주체(duty-bearer)

C : 권리의 근거(국제인권규약, 헌법, 법률 등)

D : 권리의 내용(권리의 목록)

학생(권리의 주체)은 학교장(의무의 주체)에게 학생인권조례(권리의 근거)를 근거로 인권교육(권리의 목록)을 요구할 수 있다.

4.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위하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1) '학생'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에서 학생은 '자신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권리 주체'로서 인식하기보다는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 '피교육자로서 지도와 훈육의 대상'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기성세대들에게 이미 지화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비록 그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한 존재라 할지라도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내재적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는 '인권의 주체'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지니는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말이고,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이다. 학생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은, 설령 교육자가 보기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용인해 준다는 뜻이다. '잘못된' 선택 역시 삶에서 배워 나가는 과정이다. 책임감 있는 자유를 가르친 다음에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길은, 교육자가 볼 때는 '잘못된' 길로 보이더라도, 그 역시 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수용해야 한다. 학생에게 '옳은 것'을 교육자가 미리 정해놓고 강요하는 것은 목적론적 도덕성에 기반 둔 행동이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누릴 인권을 가진 주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사고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2) 교사와 교권에 대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인권은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이다. 자신의 인권을 알고 누려야 하는 책임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지켜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이 교권이라 한다면 그런 교권은 제한되어야 하듯이, 교사의 정당한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학생인권이라 한다면 그런 학생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적 교육환경과 반인권적 교육환경이 대립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생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의 관계 인식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이 함부로 침해되는 학교에서 교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이 보장되면 그만큼 비례하여 교권 역시 보장된다.

3)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교육이 필수적이다. 교권과 학생인권,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 등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적 사항에 대한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청이나 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교육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 교육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령과 조례 및 학칙의 제정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인권친화적인 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 학교 삶 안에서 인권의 가치가 생동하는 학교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이 학교 구성원의 일상생활 안에 뿌리를 내리는 학교이다. 그런 결과로 학교 구성원의 삶이 인간으로서 높은 품격을 누리는 학교를 말한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1. 학교(학생)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없는가?
2. 학교의 결정, 학급의 결정사항에 대해 구성원의 참여와 결정 방식은 민주적인가?
3. 교사인 나는 민주적인가?

선생님? 물 마시러 가도 돼요?

송겨레 (회원, 초등교사)



“선생님 물 마시러 가도 돼요?”

수업 시작한 지 3분도 되지 않아 한준이가 또 손을 들고 묻는다. 그 해답에 또 부아가 치민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지난주, 지지난 주 지지 지난주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똑같이 재생이 되었다.

4학년이 영어실에 오는 날은 일주일에 2번, 그중에서도 금요일 5교시에는 유독 목마르다는 학생이 많다. 지난주에도 지지난 주에도 그 전주에도 “다음 주부터는 목마를 것 같으면 물병을 가지고 와라” 주의를 주고 다녀오게 했었다.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코로나로 정수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체육 다음 시간인지라 안쓰러운 마음에 참으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다음 주 한준이가 수업 시작하자마자 손을 들고 “선생님 물 마시러 가도 돼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아이들을 집중시켰다. “다음 시간부터는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물병을 가지고 오세요. 화장실이 가고 싶을 것 같으면 화장실도 들렀다가 영어실을 오세요.” 다시 힘주어 말한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지지난 주와 똑같다. 그리고 회심의 한마디를 더 붙였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상황이어도 보내주지 않을 겁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진 금요일 퇴근 후 남편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나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게 일인 것 같다며 하소연을 했다.

하소연을 듣던 남편이 세상 느긋하게 묻는다.

“일주일에 영어실에 몇 번 오는데?”

“일주일에 2번인 반도 있고, 3번인 반도 있지”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안 만나니까 학생들은 그 사이에 까먹는 게 당연하지.”

순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박을 위한 반박을 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석 달을 들었으면 열 번도 넘게 들었겠다~!”

다시 돌아온 금요일 5교시 지난주 있었던 일은 잊은 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물병을 들고 자신 있게 들어온다.

“선생님 오늘은 물병 가져왔어요.~”

어찌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들어오던지 신기했다. 내가 지난주에 했던 고민을 눈치 챈 건가? 아니면, 다시는 물 마시러 가게 해주지 않을 거라는 엄포 때문인 건가?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귀여워 웃음이 났다.

사실 오늘은 학생들이 물병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화가 덜 났을 것 같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주의를 잘 듣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때와 ‘일주일에 두 번 오는 교실의 규칙을 기억 못 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때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않은 요즘 학교의 상황에서 당연하게 할 일들을 해내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대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대단한 아이들을 위해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생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아이들을 바라보아야겠다.

영원한 청년, 교육운동가 김윤수, 박철희 선생님!

6월 4일, 화창한 금요일! 김윤수, 박철희 부부 회원이 근무하는 사)한몸평화 사무실(전주고백교회 내)을 정우식 이사장과 함께 방문하였다. 김윤수 선생님께서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주신다. 박철희 선생님은 부설기관인 한몸평화문화관에서 광주 지혜학교 학생들이 오전까지 3박4일 프로그램을 마치고 떠나서 뒷마무리 중이라고 했다.

김윤수, 박철희 회원은 교직에서 퇴직하신 이후, 지난 2014년 설립한 사)한몸평화 단체에서 두 분 다 대표로, 사무국장으로 여전히 현역으로 바쁘게 살고 계셨다. 단체 활동으로는 그동안 평화, 인권운동가 인물기행, 가족 초청 행사, 다양한 평화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로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내가 김윤수 선생님을 처음 만난 때는 1980년대 중반 전주YMCA교사협의회 시절이었다. 20대 젊은 교사뿐이었던 단체에 30대 중반의 중견 교사가 오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이후 김윤수 선생님께서는 전북교육민주화선언(1986년), 4.13 호헌철폐선언(1987), 민주교육추진 전북교사협의회(1987)에서 늘 앞장서서 희생을 무릅쓰고 활동하셨다. 그리고 1989년 전교조 전북지부 초대 지부장을 맡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든든한 기둥으로 서 계셔 주셨다. 난 어느 날, 문득 만약 전북에 김윤수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본 일이 있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다. 이러한 김윤수 선생님 곁에서 박철희 선생님의 노고는 짐작이 가고도 남지만, 내가 볼 땐 아마 박철희 선생님의 의지도 김윤수 선생님에 뒤지지 않으신다.

김윤수, 박철희 선생님은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창립회원으로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해주신다. 사무실이 있는 고백교회는 80년대, 90년대 교육운동의 산실이기도 하다. 당시 장소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늘 고백교회(한상렬 목사)에서 흔쾌히 장소를 내주셔서 모임과 행사를 진행했었다. 김윤수, 박철희 회원 덕분에 예쁜 꽃들에 둘러싸인 고백교회를 둘러보며 옛 추억에 잠시나마 젖어 보았다.

여전히 현역으로 뛰시는 청년 교육운동가 김윤수 선생님, 내년이면 칠순이시라니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진다. 두 분의 더욱 건강한 활동과 평안한 일상을 기원해본다. (탐방/글 편집인 이미영)



[연대 소식]

아이행복, ‘함열향교 3락(樂)’ 올해도 활발하게 진행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이사장 강유희)이 올해도 3년째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문화재청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함열향교에서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행사 주제로 유생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논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학부모,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1박2일 전통문화 프로그램은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편집자 주】 이번 호부터 문채병 선생님(본원 이사, 한문 전공)이 제공하는 [고전의 향기]란을 신설한다.
삶의 통찰력과 생활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子曰 鄉原, 德之賊也.(論語 陽貨 17장)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향원은 덕의 적(파괴자)이다.”

향원? 주자는 ‘일정 지역 내 독실한 인물(愿人:원인)’로, 정약용은 ‘일정 지역 내에서 도덕적 삶의 모범으로 칭송받는 인물’로 지칭했다. 한마디로 철저한 이미지 관리로, 진짜 군자를 뺏치는 사이비 도덕군자를 가리킨다. 국가, 국민, 사회, 도덕 기풍에 중대한 위험과 폐풍(弊風)을 조장하면서도 그 스스로 항상 옳다고 여기면서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도덕의 賊(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맹자는 “비판하려고 해도 꼬집을 데가 없고 비난하려고 해도 나무랄 데가 없다. 그 처신은 충직하고 믿음성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행실은 염치가 있고 고결한 것처럼 보여서 못 사람들이 다 그를 환호한다.”고 비판했다.

- 말은 점잖고, 행동은 신실(信實)한 것처럼 보인다. 음흉함은 꾀잡음으로, 집요한 야욕은 열정과 신실로 변색되어 다가온다.
-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자명한 사실(팩트)에 조차 애써 ‘중립(中立)’을 표방한다. 그래서 진실에 누명을 씌우고 거짓에는 면죄부를 준다.
-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판단을 외면하면서 양비론을 구사한다. 결과적으로 선(善)에게 반침대를 빼버리고 악(惡)에 용기를 북돋운다.
- 향원은 정치 줍도둑이다. 남의 손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 꿈수에 능하다. 고난으로 일궈낸 시민의 공훈을 재빠르게 독차지, 월계관을 쓰고서 대중에게 은혜로 퍼주는 그 행세를 몰라치면 영락없는 중생구제 보살이다.

중요한 때는 사리(事理)를 어지럽히는 배경이 되고, 결정적으로 인과응보 정의를 설상가상으로 변곡시켜 온 지렛대로 흑역사를 빚어낸다. 논밭의 가라지(피)처럼 구별이 쉽지 않지만, 율곡과 함석헌 선생도 토벌하도록 북소리 크게 울린 것도 그 막대한 해악으로 인한 절박성 때문이었다. 총칼보다 훨씬 고약한 민주주의의 적이다.

향원이여, 리더가 되려거든 남도 알 수 있게 방귀를 크게 뀌어라. 근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은근슬쩍 밀어내지 말고, 비밀은 없다. 투명한 정풍(整風)의 시대에...

